

# 코로나 시대 휴가 풍속도...해외 안가고 당일여행 늘어난다

교통연구원 '하계휴가 통행실태조사' 실시결과

해외 21.7→2.0%↓...당일 여행 1.5→11.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여름휴가는 어느 때와 다른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떠나는 국내 여행이 늘어날 전망이다.

감염증 확산 우려로 당일치기나 1박2일 여행기간을 줄이고 많은 인파가 몰리는 바닷가보다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6150명을 대상으로 '하계휴가 통행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조사에서 '휴가를 간다'는 응답은 전년에 비해 3.6% 감소한 37.8%로 조사됐다.

나머지 '휴가를 가지 않겠다'(22.0%) 또는 '미정'(40.2%)이라

고 답한 비율은 62.2%로 조사됐다. 휴가 계획 없거나 미정인 이유는 '여름 휴가철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예정 비율이 지난해 21.7%에서 2.0%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반적으로 휴가 일정을 줄이는 추세다. 2박3일이 26.8%로 전년 38.5% 대비 줄어든 반면 당일(1.5→11.8%)이나 1박2일(13.2→18.1%)의 응답률이 높아졌다.

휴가 여행지를 선택하는 모습도 예년과 많이 다르다.

올해 '바다 또는 계곡'(바캉스형)의 응답률은 34.6%로 전년(54.6%) 대비 줄었다. 반면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이나 삼림욕'(자연대화형)은 같은 기간 19.3%에서 30.1%로 높아져 코로나19 이후 달

라진 분위기를 실감케 했다. 감염 확산 우려로 자가용 이용은 늘어날 전망이다.

하계휴가 기간 중 주된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75.6%로 가장 많았다.

자가용을 선택한 응답자 중 14.2%는 '코로나19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중교통 이용을 줄이는 분위기는 일상생활에서도 감지된다.

연구원이 응답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 속 교통수단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이용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37.9%에서 이후 23.2%로 14.7%포인트(p) 감소했다.

응답자들이 전망한 향후 대중교통 이용률은 24.2%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자가용 이용률은 감염병 이전 56.9%에서 이후 70.4%로 13.5%p 늘었으며, 향후에도 69.9%의 이용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여름휴가 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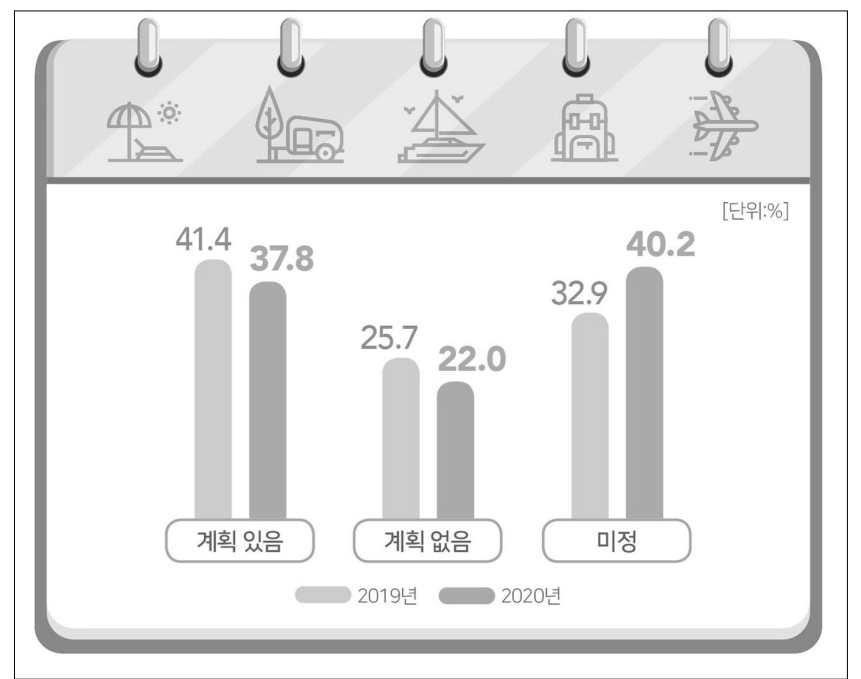
올해 여름휴가 계획 집중기간은 8월1~7일이 23.2%로, 이 기간 고속도로 예상 일평균 통행량은 최대 476만대에 달할 전망이다. 전년 같은 기간 469만대 대비 1.3% 증가한 것이다.

이어 ▲8월22일 이후 19.6% ▲7월25~31일 14.8% ▲8월8~14일 13.2% 등 순으로 여름휴가 계획을 세운 사람이 많았다.

휴가비는 소폭 감소할 전망이다. 가구당 평균 국내여행 지출 예상비용은 작년 76만4000원에서 74만7000원으로 약 1만7000원 줄일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국토부는 여름 휴가철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와 코로나19 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안전 환경조성과 방역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여름철 휴가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기상 악화 등에 대비해 고속도로에 졸음 알리미 경고(298대), 졸음쉼터(229개소) 임시시그널 조성(75개소) 등 편의시설을 운영한다.



또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량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에서는 드론(무인항공기)과 경찰청 암행순찰차기 협업해 전용차로 위반, 과속,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서 방역·환기 등 생활방역 활동도 실시한다.

어머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여름 휴가철은 들뜬 마음과 음주 등으로 교통사고가 증가될 우려가 있어 여행객의 안전운전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휴가지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손 소독 등 생활 방역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정 기자



"맛과 건강을 동시에" 26일 오전 서울시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11층 하늘정원에서 직원들이 그리팅몰에서 선보이는 통밀 7곡 식빵, 비건 식빵 등 건강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현대백화점그룹 제공)

## 21살 청년 '스타벅스 코리아'...“어느새 이렇게 컸나”

하워드 슐츠가 체인점 사업권 획득한 뒤 폭발적 성장

스타벅스는 1971년 미국 시애틀에 첫 매장을 오픈했다. 영어 교사 제리 볼드윈, 역사 교사 제프 시글, 작가 고든 보커 등 3명의 동업자가 뜻을 함께 했다.

이들은 커피전문점을 내면서 가게 이름을 고민했다. 그리고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에 등장하는 일등 항해사 '스타벅(Starbuck)'을 참고했다.

허먼 멜빌은 미국에서 포경업이 성행할 때 고래잡이로 생활을 꾸리던 이들을 주목했다. 이들은 바이킹의 후예로 영국의 해안 근처에 살고 있던 스토베를 조상으 뒀다. 바이킹의 후예답게 이들은 다른 선원들과는 달리 고래잡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이를 주목한 허먼 멜빌은 이들을 모티브로 한 소설 모비딕을 쓰게 된다.

일등 항해사가 스타벅으로 불린 이유도 바이킹의 후예로 고래잡이 부문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춘 선원이라는 뜻을 담기 위해서로 알려졌다.

커피전문점을 내기로 의기 투합한 3명의 동업자는 복수의 동업자가 사업체를 이끄는 만큼 복수를 뜻하는 S를 포함해 스타벅스로 기업명을 지었다.



기업명이 정해진 뒤 창업주 3명은 스타벅스 로고는 17세기 관화를 참고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이렌이라는 바다의 인어로 표현했다. 세이렌은 아름답고 달콤한 노랫소리로 지나가는 배의 선원들을 유혹해 죽게 하는 인어다. 창업주 3명은 사람들을 불러서 스타벅스에 자주 발걸음을 하게 만들겠다는 뜻을 로고에 담았다.

1982년에는 스타벅스에 하워드 슐츠가 영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하워드 슐츠는 당시 창업주들에게 마리 만들어진 커피를 팔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창업주들이 하워드 슐츠의 의견

에 반대한 이유는 음료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초창기 스타벅스 기업의 핵심 사업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을 현실화시킬 경우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확신한 그는 스스로 1986년 커피 바 체인점 '일 지오말레'를 오픈했다.

스타벅스를 열었던 창업주들은 1987년 하워드 슐츠에게 스타벅스 체인을 판매했고 이후 일 지오말레 브랜드를 스타벅스로 통합시키고 체인점은 급속도로 늘어났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

대한민국에서 스타벅스는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첫 매장을 열었다.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2000년 12월 설립됐다. 국내에 들어온 스타벅스는 커피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판매한다'는 소문이 확산되며 급속한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경험이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일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고객들에게 각인됐다. 이는 스타벅스의 상품성을 더욱 높였다. 국내에 들어온지 약 7년째 되던 2004년 7월에는 이태원에 100번째 점포가 출점했다. 2017년에는 1000개 점포를 돌파했다.

오유나 기자

## 중소기업 수출, 거의 회복...대기업은 아직도 -13%

중소기업 수출 전년 동월 -23.2%에서 -1.9% 감소

중소기업 수출이 회복세로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중소기업연구원 'KOSBI 중소기업 동향 2020년 7월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수출은 전년 동월 -23.2%에서 -1.9%로 감소했다. 대기업 수출이 -13.5% 하락한 것과 비교해 오히려 양호한 실적이다.

중기연구원은 이에 대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대한 수출이 증가로 전환하고 조업일수가 늘어났

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매판매는 무점포 소매, 슈퍼마켓·잡화점 등의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이 -3.0%에서 0.2%로 높아졌다. 온라인쇼핑은 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3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3만명(-1.6%) 감소했다. 이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로 전월(-46.3만명)에 비해 감소폭이 줄어든 수치다. 자영업자는 55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5만명(2.7%) 감소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코로나19 지속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우리나라 일자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고용유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봉우 기자

## 이달 말부터 274만 카드가맹점에 우대 수수료 적용

오늘 안내문 발송...콜센터·매출거래 조회 시스템서 확인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은 전체의 96%에 달하는 274만3000개로 집계됐다.

또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사업자 중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19만7000곳이 카드수수료 505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0년 하

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및 2020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안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274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로, 올 6000개 늘었다.

서선욱 기자

## 잘 키운 여름 보약...‘장성 차돌복숭아’ 본격 출하



아삭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전남 장성의 대표 특산물 '불태산 차돌복숭아'가 8월 중순까지 본격 출하된다. (장성군 제공)

아삭하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전남 장성의 여름 대표 특산물 '차돌복숭아'가 계절을 맞아 본격 출하된다.

장성군은 여름철 보약으로 각광 받는 차돌복숭아가 장성 진원면과 남면 재배지를 중심으로 오는 8월 중순까지 약 20여일 동

안 집중 출하된다고 26일 밝혔다. 장성 특산 차돌복숭아는 일교차가 큰 불태산 지역 고랭지에서 재배돼 타 지역 복숭아보다 당도가 높고, 단단해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이 일품이다.

까칠까칠한 털이 없고 매끈해 바로 씻어서 껍질 채 먹을 수 있고, 과육이 단단해 쉽게 물러지지 않아 냉장 보관 시 1개월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정도로 저장성이 뛰어나다. 체력 소모가 많은 여름철에 제격인 차돌복숭아는 비타민이 풍부해 피로회복을 돕고 노화방지도 좋다.

다량 함유된 유기산은 해독 작용을 돕고, 특히 니코틴 배출 효과는 차돌복숭아가 장성 진원면과 남면 재배지를 중심으로 오는 8월 중순까지 약 20여일 동

별 과정을 거쳐 최상의 상품만 공급·백화점·대형마트 등에 공급하고 있다.

산지 직접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남면농협 로컬푸드직매장(061-394-7500)과 진원농협 공선회(061-392-5034) 또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면 된다. 장성 지역 복숭아 재배 규모는 114개 농가, 46ha로 연간 652t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80%를 차돌복숭아가 차지할 정도로 효과 소득 작물로 농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장성군은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해 매년 신규 과원조성, 시설현대화, 통합마케팅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